

천태종 해외포교 팔 걷었다

덴마크 이어 加·몽골에 포교당 건립...파키스탄과 교류 추진

천태종이 '세계속의 천태종'으로 거듭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북한의 개성 영통사 기와·단청 지원을 통해 천태종의 위상을 높인 데 이어 이번에는 해외로 발을 넓히는 걸음을 재촉하고 있어 주목된다.

2002년 4월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 처음으로 포교당을 개설한 이후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캐나다와 몽골, 파키스탄 등지에도 포교당 개설을 추진한다. 캐나다와 몽골은 이미 건립봉사를 진행중이거나 부지확보를 마무리하는 등 속도를 올리고 있다.

천태종의 유럽지역 포교거점인 덴마크 포교당(주지 월장)은 문을 연 지 2년만에 정기법회에 50명이 참석할 정도로 활성화됐다. 뿐만 아니라 8월부터는 덴마크내 한국입양인이 다니는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도 천태종 종단 차원으로 이뤄진다. 천태종은 덴마크를 발판으로 삼아 독일, 프랑스 등지의 유럽지역으로 교세를 확장한다는 장기적인 포석이 깔려 있다.

이에 앞서 천태종은 덴마크내 한국입양인 50명을 7월말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에 초청해 총본산 구인사와 금강대, 서울 관문사 등을

둘러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들을 포함한 세계입양인대회 참가자 6백 여명에게도 서울 관문사에서 사찰 생활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천태종의 두 번째로 개설된 해외 포교당은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평화사(주지 춘광), 교무부장 춘광 스님이 초대 주지를 맡아 올 10월개 정식 집안·개원을 목표로 건립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캐나다신도회가 구성돼 정기법회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몽골과 파키스탄과의 교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몽골과의 교류는 생필품 지원과

포교당 개설로 방향이 정해졌다. 천태종은 지난 4월 총무원장 운덕 스님 등 총무원 집행부가 몽골을 방문했을 때 몽골정부로부터 수도 울란바토르에 포교당 부지를 제공받기로 약정, 2만여평을 확보한 데 이어 2차 포교당 봉사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몽골에 대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천태종은 첫 교류의 일환으로 6월 23일 구인사에서 '생필품 보내기운동 원만성취 법회'를 열어 인류 이불 신발 내의 등 3만8천점의 생필품을 페렌페이 우르원훈대부주한 몽골대사를 통해 몽골 서민들

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슬람국가인 파키스탄과의 교류도 불교가 드물지 않다. 총무원장 운덕 스님과 총무원 집행부는 7월 14-21일 파키스탄을 방문해 불교유물 교환 등 교류를 위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천태종은 파키스탄이 백제에 불교를 전한 마라난다 스님의 출생지이며 대승불교와 간다라 불교의 발원지라는 한국불교와의 연관성 때문에 교류를 끌어내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천태종의 파키스탄과의 교류는 대승불교를 전파했던 파키스탄에 한국불교를 다시 전하는 불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덴마크 포교당 주지 월장 스님은 "해외포교당은 해당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과 국가에 천태종과 한국불교를 알리는 포교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며 "한국불교와 천태종의 씨앗을 심는 의미있는 불사로 회향될 수 있도록 해외포교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천태종은 6월 14일 구인사 대조사전에서 상월 원각 조사 30돌 열반대재를 봉행했다. 종단 대표들이 헌향한 3개의 예를 올리는 모습.

상월조사 원적 30돌 열반대재 2만여명 참석... '유혼 잇자' 다짐

천태종은 중창조인 상월 원각 조사의 열반 30주년을 맞아 6월 14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열반대재를 봉행했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운덕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 스님, 이원종 총부도지사 등 2만여명의 참석자들은 중창조의 원적 30돌을 기리며 상월조사의 유혼을 이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은 추모사에서 "상월 원각 대조사야말로 무상대도를 성취한 각자요, 새 교화운동을 전개해 정법중흥의 일대사업을 수행하신 대종가였다"며

"대조사의 가르침과 유업이 역사에 빛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정진하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1945년 구인사를 창건한 상월 조사는 67년 법화 수행을 근간으로 하는 천태종을 중창하고, 주경야선(晝耕夜禪)을 생활화 하도록 하는 등 불교운동을 주창했다.

이후 애국·생할·대승불교를 3대 지표로 91개소의 말사와 152개소의 포교소, 8천7백여명의 신도를 확보하는 등 왕성한 불사를 전개해 천태종의 제도적 틀을 정착시켰다.

박봉영 기자

태고종 종단통합 법적 토대 마련

총무원장 연임금지 등 종헌 개정·사찰법 제정

태고종이 종단 재산 보호를 위한 사찰법을 제정하는 등 종헌중흥을 대책 손질했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인공은 6월 15일 서울 봉원사에서 제89회 임시중앙총회를 열고 총무원이 제출한 종헌·종법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로 개정된 종헌은 법인 설립과 관련해 총무원의 승인조항 삽입과 주요 총무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총무원장과 지방교구 총무원장 등의 연임금지 조항과 부정선거로 선출된 당선자의 자격상실 조항을 포함시켜 윤리성을 더욱 강화했다. 중앙호법위원회는 중앙사정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사찰사업이 대부분인 태고종의 사찰 재산과 주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찰법도 새로 제정했다.

사찰법에는 종단 소속 사찰을 재산소유 및 운영의 형태에 따라 역사적으로 전래된 기성사찰과 종단명의로 등기된 종유사찰, 사찰명의의 사유(寺有)사찰, 사설사찰, 총림사찰, 직할사찰, 직영사찰, 법인사찰 등 8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사찰을 사격에 따라 총본산, 대본산, 본산, 일반사찰, 암자, 포교원 등으로 구분

해 부담금 책정 등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또 주지의 임명절차와 권한, 해임 등의 기준도 포함했다.

태고종은 이번 사찰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단 소속 사찰들의 분류와 다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끊임없이 이어지던 종단 소속 사찰의 소유권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인 명의로 등기된 사찰사업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대해 승려의 재산소유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앙총회는 총무원내에 문화부를 새로 신설하고 기획감사실을 기획부로 변경하는 등 총무원법도 손질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이번 종헌중흥 제·개정은 종단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태고종의 내적 역량을 키우는 중책을 세우 일관성있게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6월9일 실시된 종도 대표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바탕으로 종단통합과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박봉영 기자



원효사상실천승가회장 가는 스님(왼쪽)은 6월 11일 일본 닛노지에 <교정국역 열반경중요>가 포함된 <원효사상전서>를 선물했다.

일소재 필사본 삽입 '열반경중요' 출간

원효사상실천승가회, 가는 스님 번역

종조 원효 스님의 저서 <열반경중요>를 연구해 온 원효종이 일본에 남아 있는 필사본을 우리말로 풀이한 <교정국역 열반경중요>를 발간했다.

원효종(총무원장 무진은) "국내에서는 이미 사라지고 일본에만 남아 있는 '열반경중요' 필사본을 원문의 형태 그대로 영인해 일본에서 들여와 이를 번역, 책으로 발간했다"고 6월 17일 밝혔다. 원효사상실천승가회(회장 가는) 주관으로 <열반경중요>에 대한 번역·연구활동을 벌여온 지 4년여만의 성과다.

<열반경중요>는 열반경의 핵심을 열반과 불성의 관점에서 고찰한 논

서로, 고려속장경 목록인 <신편제종교장총록>에 기록돼 있을 뿐 원본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는 1478년 편찬된 <동문선>에 서문이 남아 있으며, 일본에는 닛노지(輪王寺) 소장 필사본(1124년)이 신수대장경 속에 활자화되어 전하고 있다. 서울대 규장각에 있는 필사본은 닛노지 필사본을 그대로 필사한 것이지만 출처가 불명확하다.

이번에 발간된 <교정국역 열반경중요>는 기존의 번역본과 차별을 두고 있다. 원효사상실천승가회가 지난 2월 일본 율왕사에서 선사받은 필사본을 함께 실어 놓았고, 원문의 문장을 끊어서 번역한 내용이 그대

로 담았다. 또 일본 닛노지에서 입수한 필사본을 부록으로 담아 비교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학술적 가치도 높이는 편이다. 원효사상실천승가회는 6월 11일 일본 닛노지에 이 책 6권을 전달했다.

원효사상실천승가회장 가는 스님(원효종 포교부장)은 "지금까지 열반경중요의 자료로 사용된 신수대장경 필사본은 닛노지 필사본을 교열해 옮겨온 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각주를 달아 놓지 않았다"며 "<교정국역 열반경중요>의 출간을 계기로 원효사상을 새롭게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원효 스님의 가르침이 올바르게 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위탁
진각재단 용문복지관내 설치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효암)이 6월 11일 대전 서구청으로부터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운영체제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진각복지재단은 서구 용문동에 소재해 있는 용문종합사회복지관내에 장애아 교육기관인 '용문어린이집'을 마련했다.

용문어린이집은 복지관내 87평을 활용해 보육실, 목욕실, 조리실,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원아모집과 부모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중증 장애아 10명, 경증 장애아 10명 등 총 20명을 모집하며, 7월 중순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042537-0615)

종단소식

7월 13~15일 종도수련회

미타종 전국총무원장 산중회의가 6월 15일 광주 무등산 해룡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종단 간부스님들은 수계식을 겸한 종도수련대회를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총본산 봉암사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또 8월 18일에는 창종 62주년 기념법회를 봉암사에서 열기로 했다. 수련대회장은 부총정혜우 스님이 맡는다. 이날 혜우 스님은 "내실 있는 종단운영을 통해 종단발전이 이뤄야 나갈 것"을 당부했다.

제27기 행사교육 접수

조계종은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제27기 행사교육원 입교 지원 서류를 각 해당교구 분사 종무소에서 접수한다. 직할사찰 소속 행자는 교육원에 직접 접수해

야 한다.

올해 4월 1일 이전에 입산해 4월 15일까지 교육원에 등록을 마치고 행사교육원 입교명령을 받은 행자를 대상으로 한다. 27기 행사교육원은 9월 1-23일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열린다. (02)732-4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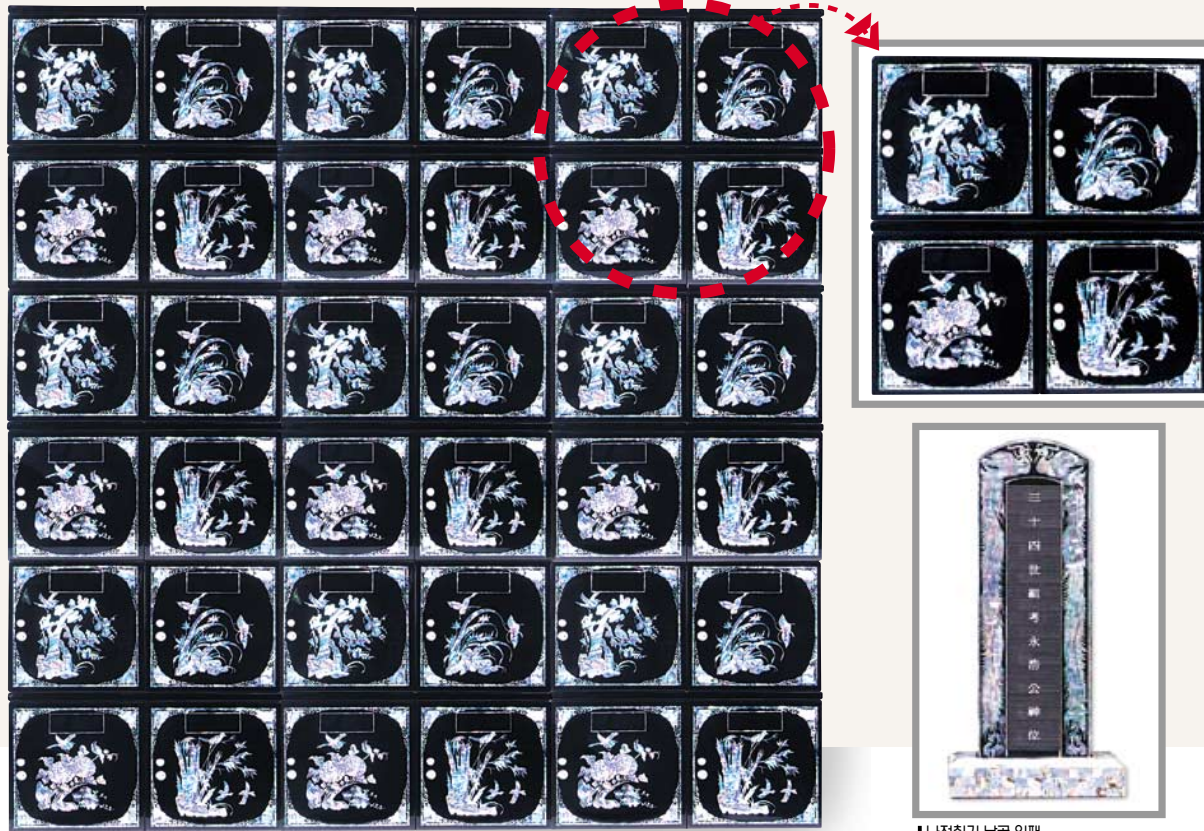
은 생명존중 수차례

태고종은 6월 24일 전북 완주 봉서사에서 '은 생명 존중 실천 영산수륙대제'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기존의 무분별한 방생방법을 지양하고 생명존중사상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새로운 틀의 방생문화를 만든다'는 취지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1부 방생법회와 2부 영산제로 진행된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비롯해 종단 간부, 종진 스님, 신도 등 1만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02)382-7361

남골장 나전칠기(사군자) 공법으로 제작한 고급 모델

수년간의 연구개발의 결과, 장엄한 전통나전칠기공법으로 남골장을 제작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골장의 미려함과 습기, 결로현상의 완전 제거 기능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사찰, 법당안에 남골당 설치 정당 (합헌 결정)

지장보살전, 명부전, 기존 건축물... 남골당 설치 가능

행정기관이 「건축 후 남골당 용도로 이용불가」라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사찰법당 내부에 남골당을 설치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장광환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주지 임연규)가 광주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설남골당 설치신고 수리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내용이 법당에 대한 건축허가임에도 동구청이 '남골당 용도로 사용불가'라는 부관을 부서한 것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남골당 설치신고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종교 집회장인 사찰에 남골당을 설치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며 설사 해당되더라도 기존 건물을 이용한 남골당 설치가 자연공원의 보전,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기존의 건물을 이용한 남골당 설치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매장 중심의 장애물화를 화상중심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아직 혐오시설로 인식해 그 설치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허용의 필요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무등산에 위치한 문빈정사는 2001년 9월 29일 극락전 법당과 화장실 등 부속시설을 증축한 뒤 이듬해 1월 4일 법당안에 약 900기 규모의 남골당을 설치하려고 신고를 했으나 동구청이 건축허가 당시 '남골당 용도로 사용불가'라는 조건에 위반된다며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당
총 목 세 020070 호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18-52번지
남골나라 돌잡 080-232-4444
H-P 011-365-0202

※ 나전칠기 및 상감기법 남골장 전시품 상시운영 (언제든지 방문하시고 확인하십시오)

돌잡 DOJAM

남골장, 남골모 제작 시공 전문업체
나전칠기 남골함, 위패 제작판매
(의정등록증 발급)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18-52번지
남골나라 돌잡 080-232-4444
H-P 011-365-0202

※ 나전칠기 및 상감기법 남골장 전시품 상시운영 (언제든지 방문하시고 확인하십시오)